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 |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건강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국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다양한 후원 나눔활동 및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조성을 위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의 보건정보 제공 및 지원, 친환경 캠페인 EM홍콩 단지기 행사, 어스체크플로깅 등을 실시하며 전년도부터 새롭게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에 이름을 올린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본부장 차재규, 이하 건협 충북세종지부)'가 그 주인공.

1964년 설립된 한국건강관리협회는 전국 17개 시·도 지부를 바탕으로 국가건강검진, 임검진, 종합검진 등 개인별 맞춤형 건강진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모두의 건강증진을 위해 건강생활정보 제공, 시민 보건을 위한 행사 개최, 소외 계층 검진 및 보건교육 확대 등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차재규 본부장을 만나봤다.

(편집자주)



청주시 봉명사거리에 위치한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Q. 어떤 계기로 지역사회공헌에 관심을 갖게 됐는지?

A. '건강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사회공헌 비전 아래 '사회문제 해결', '참여와 공감', '건강과 행복'이라는 3대 사회공헌 핵심가치를 선정해 건협 충북세종지부는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으로서 지역 내 사회문제 해결에 보탬이 되고자 관심을 갖게 됐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A. 의료기관으로서 취약계층(저소득층, 의료취약)을 대상으로 검진과 후원지원, 나눔사업(성금, 직거래, 반찬배달, 간식제공), 건협 충북세종지부 내 봉사단을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인 봉사활동(환경정화, 농촌일손돕기, 감장담그기, 재난지역, 수해복구), 건강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보건교육 및 건강캠페인(건강체력터, 복지시설, 대

사회문제 해결·참여와 공감·건강과 행복... 3대 핵심가치 취약계층 검진과 후원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펼쳐

학교, 스포츠시설),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자연환경 정화활동, 현열활동 등 도움이나 손길이 필요로 하는 곳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하여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돕고 있다.

Q.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선정된 소감은?

A. 지역사회를 위해 노력한 활동이 인정받는 것 같아 영광스럽고, 더 많은 책임감과 의지를 갖게되어 지역사회 내에서 보다 더 필요로 하는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다. 인정기업으로 선정되기까지 노력해 준 직원·봉사단의 노고와 가장 컸고, 그에 대한 결실이 좋은 결과로 돌아오게 되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Q. 사회공헌활동으로 얻은 성과는?

A. 단순히 건강검진·증진활동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공익 의료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렇게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Q. 지역사회공헌을 위해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은?

A. 최근 악화하는 기후 속, 환경문제 심각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에, 걸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고 건강을 지키는 '어스체크플로깅', 하

천 수질 개선을 위한 'EM홍콩(80여종 미생물을 황토와 섞어 만든 콩) 단지기 행사' 개최 등을 했다.

앞으로도 친환경 캠페인 환경정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Q. 앞으로 지역사회공헌 계획은?

A. 의료기관으로서 건강검진, 보건교육, 건강캠페인은 물론, 1사1촌 사업을 통한 농촌지역과의 협력 강화, 청주 및 오송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내 주요 단체(기관)와 지역공동체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나눔활동, 지역 복지증진 분야에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 더 많은 봉사활동 참여 및 환경보호 부분에 대한 활동도 적극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수질오염 개선을 위해 청주 가경천에서 'EM홍콩 단지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불우이웃을 위해 100만원 상당의 라면 및 백미를 봉명동 행정복지센터에 후원했다.

충북도, 의료비후불제 대상질환 확대 추진

6개월환에서 14개월환으로 확대 방안 논의

충북도는 지난 6일 의료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해 민선 8기 대표 공약인 의료비후불제의 사업 확대에 대한 대화의 시간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청북도 의사회와 치과의사회, 충북지역암센터 등 의료계 전문가와 공무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의 주요내용으로는 의료비후불제의 사업의 추진 현황에 이어, 대상질환 확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의료계 전문가들과 정책 추진에 대해 6개월환(임플란트, 슬·고관절, 척추, 심·뇌혈관)에서 14개월환(치아부정교합, 암, 소화기(담낭, 간, 위, 췌장), 호흡기, 산부인과, 골절, 비뇨기, 안과)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김영환 충북지사는 의료비후불제의 확대 추진에 대한 배경

과 방향성을 설명하며 도민의 건강권 보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 또한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긍정적 파급효과에 공감하는 한편 사업의 확대추진에 따른 다양한 관점의 의견을 제시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이러한 대화의 자리를 통해 의료관계자들과 긍정적인 의견을 도출하여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철저한 준비를 통해 도내 취약계층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료비후불제 신청 현황은 5월 기준 334명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 해소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를 희망한 의료기관은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21개소와 치과 병의원 127개소로 지속적인 참여 홍보를 통해 의료기관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충북도, 결혼·출산 분야 저출생 대책 발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비용 지원 등

충북도는 신혼부부 결혼지원금, 임신부 산후조리비, 출산가정 대출이자 등 신규 시책 사업과 함께 미혼모 지원을 강화하는 내년도 결혼·출산 분야 저출생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신혼부부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해 주택자금(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비용을 최대 2년간 연 100만원 지원한다.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가 지원 대상이며,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도내 청년 신혼부부의 지역 정착 기반 마련과 임신·출산 준비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원의 결혼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전후로 6개월 이상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19~39세 청년 신혼부부이다.

도내 청년들의 장기근속 및 결혼 장려 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도 가입 대상을 기존 미혼 청년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및 농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하여 5년간 매월 60만원(도·시·군비 50%, 자부담 50%)을 적립할 수 있게 확대한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초저출산 시대 산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내 6개월 이상 거주 산모에게 50만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산후조리 경비, 산후유증 등

상담료, 산후건강관리 비용 등을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아울러, 분만산부인과가 없는 도내 분만취약지역(보은·옥천·영동·증평·괴산·음성·단양) 임신부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임신부에게 5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

대중교통비와 택시비, 자가용 유류비, 톨게이트비 등을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한다.

또 전국 최초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생활자금 신용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중위소득 180% 이하 0~2세 출산가정이 지원 대상이며, 최대 3년간 연 10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충청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기존 출생 신고한 한부모가족에서 임신 중인 미혼모까지 확대하며, 새생명지원센터·여성긴급전화 1366·가족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한 지원체제도 구축한다.

또한, 생계가 어려운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에 대하여 임신확인증 발급 검사비용 10만원과 월 30만원의 긴급생활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하며, 총 1억원의 예산을 들여 LH 매입임대 주택 4개소를 활용하여 긴급주거도 지원한다.

도서출판 유한사

28505 청주시 청원구 대성로 285 (우암동 224-6)

285, Daeseong-ro, Cheongwon-gu, Cheongju-si, Chungcheongbuk-do, Korea

TEL:(043) 255-0504, 253-0504 FAX:(043) 222-0504

H.P: 010-9566-0504 E-mail: youhansa@daum.net

각종 교육 교재
 책자제본·스프링제본
 칼라복사·칼라출력
 대형코팅·현수막출력
 대형출력·도면복사

무인프린트샵 프린트카페

청주대정문점

가입문의 1522-5044

24시
 무인복사기

복사
 출력
 스캔
 팩스

진천군, 합계출산율 1.107 '충북 1위'

인구 감소·관심 지역 제외, 상위 6번째 높은 출산율

진천군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지난 7일 진천군 등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2022 출생 통계'에 군 합계출산율은 1.107명을 기록했다.

전국 평균 0.778명과 충북도 평균 0.87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로 지난해에 이어 도내 최고 기록을 이어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전국 228개 시군구(제주 비 자치구 포함) 중 합계출산율 1.0명 이상인 시군구는 49개에 불과했다. 그 중 진천군은 26번째(상위 11%)를 기록했으며 인구 감소·관심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6번째로 높은 출산율을 보였다.

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509

명으로 인구 대비 출생아 비율도 0.59%로 도내 최고 수준이다.

군은 맞춤형 출산·양육정책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분석했다.

출산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모자 보건사업을 비롯 임신부 교육, 부부에 클래스, 산전·후 여성 마음 건강 사업 등을 통해 친임신·출산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결혼과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가족 형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전파하기 위한 인구교육도 눈에 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구교육과 MZ세대 공무원 대상인 '행복한 가정 만들기' 교육이 그 예다. 군은 앞으로 나이별, 계층별 맞춤형 인구교육을 더욱 확대하고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돌봄공동체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저출산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에너지효율플러스 사업' 협약식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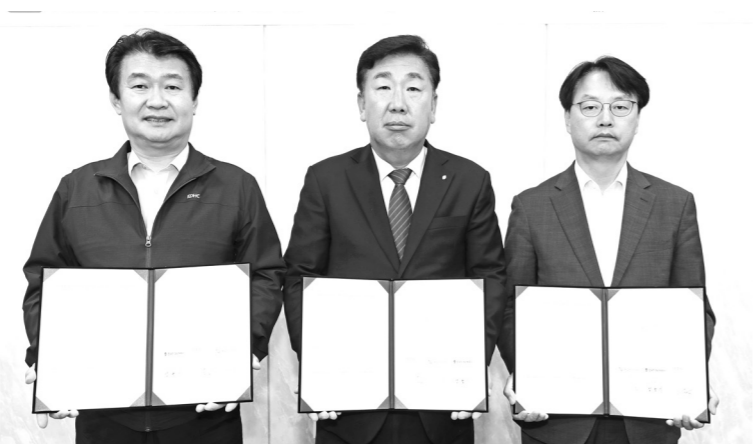
지역난방공사-에너지재단 맞은

청주시가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에너지대란 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 시작으로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재단과 '2023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효율플러스 사업' 협약식을 가졌다.

협약식에는 이범석 청주시장, 정용기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주영남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 등 각 기관 관계자 15명이 참석했다.

에너지효율플러스 사업은 동절기 난방료의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의 난방비용 완화 및 추위에 저항력이 약한 에너지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청주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재단과 함께 2023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효율플러스 사업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에너지 나눔을 위한 기금을 지원하고 한국에너지재단이 사업을 계획·실행하며 청주시는 사업홍보 및 지원 대상을

추천한다. 이 사업으로 청주시의 추천을 받은 사회복지시설 50개소는 350만원 상당의 고효율 난방기기의 구입 및 설치를 지원 받고, 공모를 통해 선정한 15개

소는 개소당 1500만원 상당의 벽면보수나 창호교체 등의 환경 개선사업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각 사업부서로부터 냉난방기기 지원 대상을 추천받아 한국에너지재단에 제공하며, 동시에 한국에너지재단은 환경개선사업 대상 시설의 공모신청을 받았다.

한국에너지재단은 9월 중 현장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오는 12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에너지 절약 차원이나, 시설운영비 절감 차원에서 고부적인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업 이외에도 시설별 기능보강사업이나,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에너지 대응력 향상을 위한 사업을 지원해 이용자 입소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군,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 '박차'

장애인 우선 사용 공공체육시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전경.

음성군은 군민의 건전하고 쾌적한 여가 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해 추진 중인 반다비 국민체육센터가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반다비 국민체육센터는 음성을 신천리 356번지에 위치한 장애인 우선 사용 공공체육시설로, 군은 지난 2019년 생활체육시설 확충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현

재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다.

군은 총 사업비 236억을 투입해, 수영장(25m, 7레인)과 체육관, 다목적실을 갖춘 5190㎡ 규모(지하 1층, 지상 2층)로 건립 중이며, 이는 음성군에 있는 체육시설 중 가장 큰 규모다.

반다비체육센터는 '문화체육관광부 반다비체육센터 지침'에 따르면 '장애인 우선 사용 공간'

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스포츠 공간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지역 사회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스포츠 복지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군은 민간위탁업체 선정 시 반다비 체육센터의 특성을 비롯해, 주민의 성별·연령별·장애 유형별·장애 정도별 등의 특성을 두루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구성

할 수 있는 업체 선정을 위해 고심한 끝에 지난 7일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아이에스티를 선정했다.

군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청주, 충주, 괴산 등 도내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평가를 진행했다.

군은 앞으로 장애인 우선 체육 시설 운영 준비에 철자를 기할 예정이다. 특히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요청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배치와 수영장 내 장애인 전용 레인에 대해서는 위탁업체와 계약 시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충북사회복지신문

발행인 김 영 석 사회복지 출판·홍보위원장 박 상 준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층
전화 : 043-234-0840 FAX : 043-234-0849
E-mail : cbbokji043@naver.com 홈페이지 : www.043w.or.kr

충주시, '영케어러 사회적 돌봄사업' 시작

가족돌봄비 192만원, 자기돌봄비 100만원 등 지원

충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광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병준) 전국기획사업 지원을 통해 영케어러 사회적 돌봄 사업인 '부모의 부모가 되다' 2차년도 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영케어러'는 장애, 질병 등의 어려움을 지닌 가족 및 친척을 직접 돌보는 10대에서 만 39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을 말한다.

복지관이 추진하는 영케어러 사업 '부모의 부모가 되다'는 진

학, 자기계발, 취업 등에 어려움을 겪는 영케어러의 가족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획했다.

복지관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진행한 1차년도 사업에 총 23명을 선정해 가족돌봄비 등 1인 최대 305만원을 지원했다.

또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진행되는 2차년도 사업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숨겨진 영케어러를 발굴해 가정 당 가족

돌봄비 192만원, 자기돌봄비 100만원 등 최대 29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광훈 관장은 "영케어러는 가족돌봄이라는 부담감을 극복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며 "충주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영케어러가 돌봄 부담 등으로 학업과 취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변에 질병, 장애, 고령의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 영케어러가 있다면 충주종합사회복지관(☎043-855-3000)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모집

청주시는 무주택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주는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25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았으나, 접수 결과 당초 사업비(2억원)의 약 60%정도 집행이 예상됨에 따라 예산 소진 시까지 추가 집

수를 결정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 계약상 주택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는 무주택 세대주이다.

면소득 6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전세보증금 2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시가 대출이자의 일부(연 최대 100만원)를 지원해준다.

시 관계자는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청주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청년정책담당관(☎043-201-12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천시, 4인 가족 근로자 이주 시 1천만원 '지원'

정주여건 개선 통해 인구유입 기대

제천시가 '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규칙' 개정을 통해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을 늘리고 지원 대상도 관광사업장 근로자가 확대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규칙 개정으로 시는 제조업 공장에 취업한 근로자 4인 가족 전체가 제천으로 주소를 이전하면 1천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은 지역 내 상시고용인원

10인 이상 공장으로 근로자가 시로 전입하면 본인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어 배우자와 첫째 자녀에게는 각각 200만원씩을 지급하고 둘째 자녀 이상부터는 500만원을 지원한다.

10인 이상관광사업 종사자도 이주정착지원금을 지원해나간다.

시는 근로자가 사업체에 계속 근로와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

해 2년 이내 퇴사하거나 이직과 타 지역 이주 시 지원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했다.

김창규 시장은 "이 사업으로 근로자의 가족단위 정착과 지역 관광분야 투자기업에 매력 있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 투자유치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인구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와 투자유치과 투자유치팀(☎043-641-6665)으로 문의하면 된다.

단양군, 취약계층에 '건강키트' 배부

귀체온계·보습로션 3종 등 물품키트 200개

단양군은 취약계층과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의 동절기 건강을 대비해 물품 키트를 배부한다.

배부 품목은 귀체온계, 보습로션 3종, 마스크, 치약세트 등

으로 구성 건강 지키미 물품 키트 200개다.

이번 물품 키트는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와 나누며하나되기(이사장 개문스님)에서 후원한 물품으로 22



건강키트 전달 모습.

일까지 대상자 200명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맛있는 나눔 사랑의 실천" 푸드뱅크가 함께합니다.
모두와 손잡고 나눔의 세상을 만듭니다.

식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기부 식품군	모집가능기한	
가공 식품	제과류	스낵, 사탕, 껌, 초코렛 등	
	즉석식품	면류(라면, 소면, 스파게티 등), 즉석밥, 죽 등	최소 30일 이전
	냉동식품	아이스크림, 케익, 비닐포장, 스테이크 등	
	통조림	참치, 장조림, 과일통조림 등	
정류 및 식용류	정류	된장, 고추장, 간장, 소금 등	
	소스류	드레싱, 고기양념류 등	최소 30일 이전
	기름류	식용유, 참기름 등	
음료류	음료류	주스, 탄산음료, 멸균우유, 건강음료(홍삼) 등	최소 30일 이전
	육가공류	햄, 햄, 소시지, 베이컨 등	최소 7일 이전
신선 식품	농산물	두부, 순두부, 콩나물, 호박, 파, 김치류 등	최소 3일 이전 (제과점은 판매달일)
	제빵류	각종 슈퍼마켓, 제과점 빵류	

생활용품별 모집 가능기한

구분	종류	모집가능기한
세제류	세면용 세제, 샴푸, 린스	최소 90일 이전
	세탁용 세제, 주방용 세제, 욕실용 세제	최소 60일 이전
휴지류	화장지	최소 60일 이전
	물휴지	최소 90일 이전
수건류	수건, 종이 수건, 손수건, 행주	최소 60일 이전
	기저귀류	유아용 기저귀, 성인용 기저귀
신체 위생용품류	치약, 칫솔, 구강세정제	최소 90일 이전
	머리빗, 면도용품, 손톱깎이	최소 60일 이전
여성 위생용품류	생리대	최소 60일 이전
	청소·환경 위생용품류	고무장갑, 걸레, 빗자루, 쓰레받기, 쓰레기통, 수세미
	가정용 살충제	최소 90일 이전

충북광역기부식품지원센터
(충북광역푸드뱅크)

기부방번호
043) 234-1377
광역 대량 기부

전국 어디서나
1688-1377
지역 소량 기부

괴산군,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본격 추진

살던 집에서 돌봄 서비스... 건강한 노후 지원



괴산군은 사업 수행기관인 괴산군노인복지관에서 괴산형 어르신돌봄 특화사업 '평생돌봄 톡톡! 네트워크 간담회'를 개최했다.

괴산군이 11개 읍면에 어르신돌봄 소통창구를 설치하며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괴산군 어르신돌봄 특화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해 노인들이 평생 살던 집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돌봄서

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일부 읍면만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계획했으나, 타 시군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괴산군 전체 읍면으로 서비스 권역을 넓혀 시작한다.

어르신들이 쉽고,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돌봄사업에 대한 안내와 서비스를 의뢰(신청)하는 어르신돌봄 소통창구를 11개 읍면 복지팀에 설치했다.

혼자 거주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가족의 돌봄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기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거나 공백이 생긴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수행기관은 괴산군노인복지관(관장 황지연)으로 괴산군과 함께 지역 내 복지시설 등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통합적 접근을 통한 사령탑 역할을 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 환경 최적화에 힘쓸 예정이다.

노인복지관은 내부 공모를 통해서 어르신의 평생돌봄이라는 의미를 가진 '평생돌봄 톡! 톡!'이란 이름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송인현 괴산군수는 "타 시군에 비해 고령화 속도가 빠른 만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전 읍면을 대상으로 결정했다"라며 "군민 모두가 노후가 걱정되지 않는 폭넓고 따뜻한 돌봄 환경을 만들어 돌봄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옥천군,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호응'

대상자 수시 모집,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

옥천군이 군민의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 중인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다.

안마서비스 등 7개 분야로 현재 155명이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이중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의 경우 신청자가 많아 서비스를 받으려면 수개월의 대기해야 하며, 아동청소년 심리상담서비스의 경우 지역에 발달 지연 등 문제를 겪는 아동들이 인근 대전 등 대도시로 나가는 불편함 없이 품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대상자는 수시로 모집하고 있으며, 선정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서비스 종류별 상이)로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선정 때 12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며 제공기관을 찾아 이용계약을 한 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면 된다.

지역서비스사업 7개 분야는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정신건강 토크케어서비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맞춤형

증평군, 아동학대 예방 위한 캠페인 실시

올바른 양육법 안내 · 아동학대예방 홍보

증평군은 지난 9일 청소년문화의집 일원에서 아동의 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 ZERO 아동권리 UP UP' 캠페인을 실시했다.

개선하고 올바른 양육법 안내 및 아동학대예방 홍보를 통해 아동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캠페인은 지역주민의 아동권리 존중에 대한 인식을

홍보부스에서는 아동학대에 방 및 아동의 4대 기본권 O·X 퀴즈,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소개,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올바른 양육법 안내 리플렛 및 홍보물 배부 등이 이뤄졌다.

평균아동참여위원회 1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증평군은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 모두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군이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참여위원회 및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운영 등 아동이 지역사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보은군, 청각·언어장애인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사회적배려 필요 민원인 위해 다양한 서비스 발굴

보은군은 민원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을 방문하는 청각·언어장애를 가진 민원인 위해 수어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수어통역서비스는 보은군 수어통역센터 도움으로 민원처리담당자와 민원인 사이의 의사소통 환경을 개선하고 수어통역이 필요한 민원인 대해 적극적으로 응대하기 위한 민원서비스다.

군은 수어통역이 필요한 민원인 방문할 경우 군 수어통역센터의 통역사 또는 수어가능한 직원과 영상통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해 신속히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를 위해 외국인 통역서비스지원, 민원서식 외국어번역본 비치,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 위한 민원서류 배달서비스 등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임춘빈 군 민원과장은 "이번 수어통역서비스를 통해 불편함 없이 신속하게 민원을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배려가 필요한 민원인을 위한 다양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규기관 |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상상에 상상을 더해 한빛으로'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는 지난 6일 음성을 읍내리에서 준공식을 개최했다.

주민 의견 반영, 계획한 사업 순차적 진행 기원 의사소통과 공감대 형성을 이룰 수 있는 복지관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관장 이영민, 이하 한빛복지관)는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군사시설 이전 이후 원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23년 8월 1일 설립되었으며, 그런 뉴딜 정책을 반영한 친환경 건축물로 지난 6일 개소식을 개최했다.

빛으로' 라는 미션으로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이용회원의 가치 실현을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음성군의 미래도시 슬로건과 함께 융합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현재 복지관의 조직구성 및 인원은 회원관리팀, 문화콘텐츠팀, 지역사회협력팀, 관리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장 포함 사회복지사 7명, 관리직 1명, 영양사 및 조리원으로 총 10명이 복지관 사업 운영을 위해 힘쓰고 있다.

한빛복지관의 주요사업으로는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전문사례관리와 취미여가 프로그램, 세대통합사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사업 등 다양한 계층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무엇보다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콘텐츠를 운영할 것이다.

한빛복지관이 위치한 음성군은 현재 농촌지역 및 산업단지 개발 등으로 외부 인구유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충북혁신도시 건설 이후 도시와 농촌이 복합·유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노인 대상으로는 '100세 힐링센터'를 통해 자존감 향상 및 세대 공감에 대해 지원하고, 경력단절 여성에게는 '새로 일하기'의 기회를 갖도록 취업교육 지원, 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안정적 성장을 위

그러나, 이전의 농촌지역 특성상 정주여건이 미비하여 지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음성군 보다는 인근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현실이다.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 전경.

이에 다양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문화·복지·여가시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그에 맞춰 한빛복지관은 '상상에 상상에 상상을 더해 우리모두 한

"새술은 새부대에... 정성껏 담겠습니다"



이영민 한빛복지관장

안녕하십니까? 한빛커뮤니티케어센터(한빛복지관) 관장 이영민입니다. 성경말씀에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성군에 한빛커뮤

니티케어센터라는 새부대가 생겼으며, 새술은 저희 임직원이 정성을 담아 빚을 예정입니다.

그것을 통해 좋은 향기와 맛에 지역주민들이 취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성실히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북사회복지신문 광고 게재 안내

충북사회복지신문은 사회복지기관 및 관련단체, 시민단체, 병원, 학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일반시민 등 전국으로 배포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슈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싶은 분은 적극적으로 충북사회복지신문을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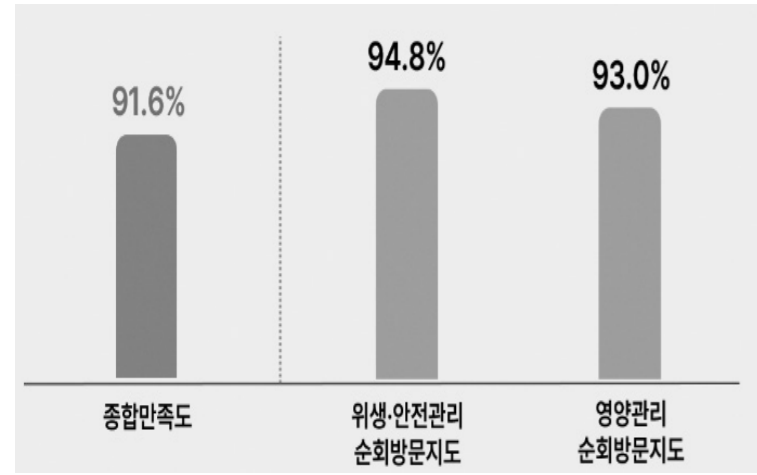
지면	크기	배색	금액(원)
1면	4단 (360mm×138mm)	컬러	300,000
	제호 옆 돌출 (67mm×33mm) (3개월)	컬러	100,000
2면~7면	4단 (360mm×138mm)	흑백	200,000
8면	4단 (360mm×138mm)	컬러	250,000

게재 개월 및 기타 상황에 따라 협의 조정 가능

문의 | 충북사회복지협의회 김세나 사회복지사 (T.043-234-0840~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년 '순항'

현재 65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2022년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만족도 조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총복 영동, 증평을 포함하여 총 68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총복의 사회복지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청주시와 충주시에 위치해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노인·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내용을 소개했다.

식약처는 급격한 고령화와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7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후 전국에 65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말 68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

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 급식 제공·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식약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조리시설 위생관리 지원 등에 94.8%가 만족한다고 답했으며, 입소자 영양상담 등에 대한 만족도는 93%로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확충,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추석연휴도 빈틈없는 노인·아동·노숙인 보호 추진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결식아동 급식 지원 등 정상운영

보건복지부는 추석연휴 기간(9.28~10.3)에도 학대피해노인과 결식아동의 긴급보호 등을 위해 노인학대 신고체계, 노인학대 신고앱 ‘나비새김(노인지킴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등을 정상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1577-1389) 및 노인학대 신고앱을 통해서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하고 학대피해노인 보호서비스를 지원한다.

나비새김(노인지킴이)앱은 언

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진·동영상·음성녹취를 첨부하여 증거를 전송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학대행위자와의 분리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숙식, 상담, 법률·의료서비스 등을 지원하여 최대 6개월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결식아동 급식 제공자의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급식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를 찾아 진행할 수 있다.

학교·자택 인근 병원에서 받는 검사도 사후 정산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업무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아·특수교원,

용 등 대체급식 수단을 마련하고, 해당 아동 및 보호자에게 상담 목록 및 이용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여 빈틈없는 급식을 지원한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추석 명절 기간 거리 노숙인이 급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의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하여 실내무료급식 지원을 확대한다.

추석 명절에 진료 가능 기관(보건소, 의료기관)에 대해 안내하고, 노숙인무료진료소, 아웃리치팀(현장상담반)을 명절 기간 운영하여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조규홍 장관은 “추석연휴에도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주변에 노인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노인학대 신고전화(☎1577-1389) 또는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앱을 통해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또한, 지역 실정에 맞게 사전에 수립된 아동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연휴 기간에도 결식아동들이 원활한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2024년 학대피해노인보호관련 예산은 노인학대예방 및 홍보,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서비스 수행 등을 위해 123억5400만원이 반영됐다. 이는 2023년 보다 4억3500만원 증액된 수치이다.

이를 통해 은폐되기 쉬운 노인학대의 신속한 발견 및 피해노인 보호조치가 활발히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 마음건강 회복지원 방안’ 발표

희망 교원 심리치료 제공

교사들의 잇따른 극단 선택으로 교직사회가 ‘집단 우울감’에 빠졌다는 우려가 나오자 정부가 이번 2학기 안에 희망하는 모든 교원이 심리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교직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주기로 심리검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교육부와 복지부는 우선 교사의 심리 검사와 상담·치료를 지

원하고, 교장·교감을 포함한 직급이나 담당 교과목에 상관없이 교원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검사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거나 각 시·도 교육청의 교원치유지원센터(26개) 또는 광역시·도, 시군구 단위로 운영되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를 찾아 진행할 수 있다.

학교·자택 인근 병원에서 받는 검사도 사후 정산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업무 스트레스가 상

조중 저학년 담임 교원과 아동학대 신고 경험 등으로 사고 후유장애(트라우마)를 겪는 교원은 우선 상담을 받되, 필요한 교원은 이 기간과 상관없이 상담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검사 결과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고, 희망하는 교원은 보건복지부 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261개)를 찾아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위기 교원은 교육부와 연계된 협력 병원이나 주거지 인근 전문병원 등 원하는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

치료비는 교원치유지원센터 자체 예산을 통해 사후 지원하는 등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이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고위험 교원을 위해 교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교원단체, 교육청 누리집 등에 긴급 심리 상담이 가능한 전화번호를 상시 게재한다.

아울러, 교원을 위한 맞춤형 심리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2년 단위로 교원에 대한 심리 검사를 정례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심리검사 도구 개발에 나서려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캠페인 실시

공무원·공공기관 종사자, 소외계층 지원 나서

보건복지부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44일간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는 공무원, 공공기관 종사자 등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우리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가 주관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성이)가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정부기

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에 추석명절을 맞아 소외된 이웃을 지원하기 위한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캠페인 출범을 안내하고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 기관의 홍보와 협조를 요청했다.

캠페인은 사랑나눔 후원 누리집에 접속한 후 직접 지원분야와 금액 등 후원정보를 입력하여 참여가 가능하고 공공부문 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후원에 동참할 수 있다. 자세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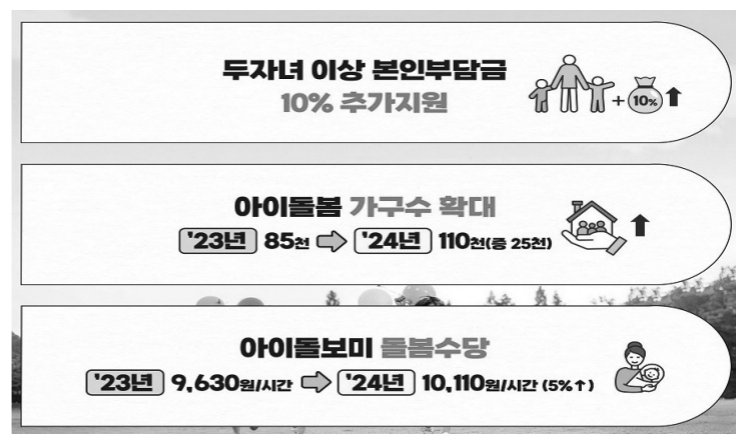
의는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사업단에 하면 된다.

‘사랑나눔실천 1인 1나눔 계좌 갖기’ 사업에는 46개 정부기관과 170여개 공공기관을 비롯해 기업, 개인후원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8월말 기준으로 6455명이 7억5899만원을 후원했다.

특히 올해에는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이 매일 급여의 10%를 후원해 조성되는 약 20억원의 재원을 별도로 활용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한 취약가구에 생활비, 주거·의료·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내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 확대

2자녀 이상 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카드뉴스.

여성가족부가 맞벌이 가구의 자녀양육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24년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한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2자

녀 이상 가구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 다자녀 가구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비율도 일부 상향해 서비스 이용 부담을 낮출 예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내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아

이돌봄서비스 지원가구가 현재 8.5만 가구에서 11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학부모·부모(24세이하) 가구에서 1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를 지원한다. 여성가족부는 공공 아이돌봄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아이돌보미 양성도 확대하며, 아이돌보미 활동수당을 이번년도 대비 5% 인상해 아이돌보미 처우도 개선한다.

또한, 지난 2월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에 제시된 돌봄인력 국가자격제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과 관련된 법령개정을 추진해 자녀 양육 부담 경감과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 아울러, 추석 연휴기간(9.28~10.3)에도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이용요금도 평일 요금(시간당 11080원)을 적용한다.

점자카드 발급으로 시각장애인 권익 증진

모든 상품 ‘점자카드’ 발급 가능

금융감독원은 시각장애인의 권익 증진 및 카드 사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카드업계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현재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점자카드 발급이 가능한 카드 상품을 2~8개 정도로 제한해 운영하고 있다. 8개 전업카드사의 점자카드 발급은 2018년 4145

다. 금감원과 카드업계는 점자카드 발급 시 상품 안내장도 점자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 시각장애인이 카드사에 장애인증서 사본 등을 제출하지 않아도 점자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확인 절차를 개선하고, 콜센터를 통해 점자카드를 신청할 때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점자카드 제작업체 선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점자카드와 점자 상품 안내장을 제공하고 콜센터 이용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전문봉사단이 되어 나눔을 실천하세요! 지역사회봉사단!

지역사회봉사단이란?

사회복지 자원봉사 인증관리시스템(vms)에 등록된 다양한 재능과 특기를 갖춘 봉사자들이 모여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소외계층에게 지속적으로 맞춤형 봉사활동을 하는 전문 자원봉사단

위촉기준

vms 가입 2인 이상으로
구성되고 연 4회 이상 활동
가능 단체

봉사단 혜택

- 활동재료비 일부 지원
- 자원봉사활동 시간(vms) 인정
- 관리 및 봉사활동 연계
- 다양한 문화공연 초청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복지사업과 박민정 코디네이터 전화) 043-234-0840

“우리는 충북 시니어 유튜버”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은 지난 15일 '2023년 제1기 시니어 유튜버 발대식'을 개최했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제1기 발대식 개최 22명 디지털서포터즈 양성·편집교육 등 수료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관장 김준환)이 개최한 '2023년 제1기 충북 시니어 유튜버 발대식'이 도내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유관기관 관계자, 청년서포터즈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종료됐다. 충청북도가 후원한 이번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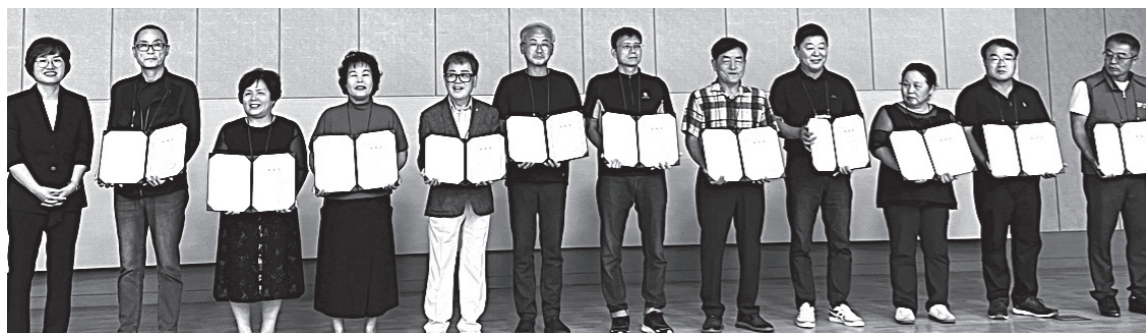
는 영상자서전 사업을 위해 미디어 촬영·편집 과정을 수료한 시니어 유튜버를 격려하고, 어르신들의 사업 동참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부터 시니어디지털서포터즈 양성교육, 시니어 유튜버 양성교육, 시니어 유튜버 전문가 과정교육, 편집교육 등 60시간

의 영상제작 전문교육을 수료하고 선발된 22명의 시니어 유튜버들이 이번 발대식을 기점으로 충북영상자서전 제작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을 가진 제1기 시니어 유튜버 22명은 12월까지 도내 곳곳에서 이웃 어르신들의 삶을 영상으로 남기는 활동을 하게 되며, 내년도에는 老-老 상생 일자리 사업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충청북도노인종합복지관 김관성 부관장은 “삶의 연륜이 있는 시니어 유튜버 어르신들의 영상제작 활동이 충청북도 곳곳에 닿아 도민들의 삶에 이야기가 아카이브로 구축되기를 기대하며, 신 노년 문화를 만들어가는 '1기 충북 시니어 유튜버'의 새로운 출발과 멋진 활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9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협약식과 '청주살피미' 위촉식을 개최했다.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청주살피미' 위촉식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육구 파악

청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이범석, 김현진)는 지난 19일 '청주시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 협약식 및 청주살피미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주살피미는 지역내 고립된 이웃을 찾아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해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청주형 고독사 예방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는 청주시내 지역복지관, 유관기관 23개소와 협업을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중심 60여명을 청주살피미로 위촉식 및 교육을 진행했다.

향후 올해말까지 청주시 장년층 1인가구 300여명을 방문하여 안부확인하고 필요한 육구를 파악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 지역 1인 가구는 22년 기준 16만1110가구로 청주시 지역 전체 가구의 41.4%를 차지해 전국 1인 가구 비율 40.5%를 웃돌고 있으며 고립된 이웃들이 고독사 등의 극단적 상황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지원이 필요하다.

단양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현장학습

경북 안동 방문... 노년층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단양노인복지관은 지난 9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단양노인복지관(관장 최은하)은 지난 9일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진행했다.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한국노인복지관협회에서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에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는 단양노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 어르신들이 안동문화예술의전당에서 '정동극장 창작극-궁:장녹수'를 관람하고, 경상북도 안동시 상아동과 성곡동 일원 안동호에 놓인 목책다리 월영교를 산책하

며 마무리했다.

고즈넉한 가을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경북 안동 월영교에서의 산책은 참여 어르신들에게 자연과 문화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궁:장녹수' 공연을 관람하며 문화예술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예술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했다.

현장학습에 참여한 어르신들은 “문화예술의 흐름을 이해하고 함께하는 회원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하게 느꼈다”고 만족했다.

단양노인복지관은 지속적으로 노년층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삶의 풍요로움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단양노인복지관에 대한 자세한 소식은 단양노인복지관 홈페이지(<http://danya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주지역자활센터 소속 유통사업단 신규 창업

더담은프렌즈, 자활기업 인증서 승인 받아

청주지역자활센터(센터장 이선재) 소속 유통사업단이 2인 규모의 유통전문기업 더담은프렌즈(대표 이수정)를 신규 창업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자활생산물 원재료 비축 및 유통판매이며, 통합적 유통채널 구축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목적이 있다.

더담은프렌즈는 2020년 달리버리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1

년 충북광역자활센터의 지역특화사업 개발 및 지원 받아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며 2022년 시장진입형 사업단으로 전환하였고, 창업의 조건을 갖추어 지난 12일 청주시로부터 자활기업 인증서를 승인 받았다.

현재 더담은프렌즈에서는 충북지역 뿐만 아니라 경남권 3개소 자활센터에 원재료를 납품하는 등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장기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원자재

확보 어려움 및 가격경쟁력 저하 등의 요소를 제거하며 현장 대응력 강화에 이바지 하고 있다.

이선재 센터장은 “그동안 더담은프렌즈는 생산-유통-판매 단계를 유기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자활사업 내에서 취약했던 원가 절감 및 유통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광역단위 공동사업(더담은김매, 더담아유, 더담은누룽지)단과 협업하며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 4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충북사회복지협의회 “마약 절대 안돼요”

'NO EXIT' 캠페인 동참... 메시지 담긴 퍼포먼스 펼쳐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는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이민성)로부터 지목을 받아 지난 4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4월부터

경찰청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공동으로 주관한 범국민운동 일환으로,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마약 심각성을 알리고자 진행 중인 릴레이 캠페인이다.

협의회 직원들은 마약 근절 메시지를 담은 팻말을 한 글자씩 드

는 퍼포먼스를 펼쳐 마약의 위험성을 부각시켰다.

김영석 회장은 “마약 근절 캠페인을 통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약 범죄를 미리 방지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참여자로는 청주시 경노인복지관 김현숙 관장과 청주시장애인단체지원센터 오명근 센터장을 지목했다.

충북아동복지협회, 꿈나무 체육대회 개최



충북아동복지협회는 지난 9일 청주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제23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충북아동복지협회(회장 권원숙)는 지난 9일 청주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제23회 보건복지부장관배 꿈나무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보건복지부와 충청북도가 후원하고 충북아동복지협회 주관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주최 전국 행사로 실시했으나 코로나19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시·도별로 진행됐다.

충청북도 내 11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와 아동 500여명을 비롯하여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이제승 국장, 충청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 김정일 부위원장, 충북아동복지협회후원회 이태희 회장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태권도 시범단(늘푸른과 친구들)의 식전 공연, 개회식, 체육대회, 시상식 순으로 진행됐다.

권원숙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꿈나무 체육대회를 통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훌륭한 사회의 일원이 되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충북

내게 꼭 맞는 사회복지정보를 한눈에!



www.043w.or.kr

정답은 충북복지넷!

SSN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Chungcheongbuk-do Council on Social Welfare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122조 4538억원 편성

약자복지는 더 두텁고 촘촘하게, 미래준비는 더 탄탄하고 꼼꼼하게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 중점 예산 편성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총지출은 122조 4538억원으로 올해 109조 1803억 대비 12.2% 증가했다.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내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약자복지 강화
- 저출산 극복
-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1. 약자복지 강화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4인 가구 기준 올해 대비 13.16% 올렸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1만3000원을 더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생계급여 및 최저보장수준의 기준이었던 기준 중위소득도 6.09% 높여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으면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이 완화돼 약 5만명(첫해 3.1만명)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하고,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을 10년만에 완화한다.

수급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 한다. 단,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 소득 1억원(월 소득 834만원) 및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간 지원인원 기준, 수급 첫해에는 2.2만명 편입을 예상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1대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대1 돌봄체계 구축 지원 예산은 2023년 15억원에서 2024년 717억원으로 확대됐다. 장애 정도가 극심해 가족이 돌보기 어려운 경우엔 24시간 개별돌봄 서비스를 모든 지역에서 제공한다. 또한 활동지원, 장애아돌봄, 발달재활 등 전 영역에서 장애인의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늘어난다.

이외에도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일자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장애인 연금도 인상됐다.

중증장애인 등에 대한 활동지원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 지원대상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가산급여 실수요와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예산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219억원에서 47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한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3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장애인활동지원 적용제외-(개정) 장애인활동보상 자격을 갖춘 3~7급 상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활동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장애아동 돌봄 및 재활서비스를 두텁게 지원한다.

중증장애 아동 가족 구성원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돌봄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한다. 발달 지연 아동 증가, 현장 대기 수요 등을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대상 인원을 확대한다.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및 노인일자리 예산을 4862억원 늘린다.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해 노인일자리 예산을 2023년에 비해 4862억원 늘려 총 2조262억원으로 책정했다. 덕분에 노인 일자리가 역대 최고 수준인 14.7만명 확대해 어르신 103만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노인 일자리 수당도 6년 만에 7% 상승, 기초연금도 더 올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할 수 있다.

변화하는 인구구조와 사회환경을 반영해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한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2024년에는 2023년보다 34억원을 늘린 37억원의 예산으로, 취약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특히 자신을 돌보지 못하던 가족돌봄청년의 학습과 신체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해 '자기돌봄비'를 새롭게 지원한다.

고독사 위험군 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있는 사람들이 고독사를 맞이하지 않도록 고독사 위험군을 맞춤형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29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영유아·장애인·노인이 아니어도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부상 또는 돌봐주던 가족의 부재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국민 누구나 소득에 관계없이 긴급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를 위해 2024년에 35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도입된다.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찌감치 돕는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을 12세 이상에서 0세 이상으로 대폭 낮췄다. 소득 요건도 생계·의료급여 수급 기준(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기준(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으로 낮춰 기초생활수급가정 어린이의 자립을 돕는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을 10만원 인상하며,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한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고 자립을 위한 맞춤형 사례관리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2024년에는 6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2. 저출산 극복

2024년에는 필수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와 미숙아 등 의료비 지원 예산이 236억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해당 예산으로 임신 준비 부부에게는 생식 건강 검진과 냉동난자 사용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도 소득 수준 관계 없이 지원한다. 0세에게 지급하는 부모급여를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린다. 또한 첫만남이용권도 둘째 아이부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2024년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 예산은 3조2691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이를 집에서 돌보다가 필요할 때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시간제 보육기관을 1030개반에서 2315개반으로 확대한다. 0~2세반은 결원아동 수 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지원이 강화된다.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를 '기준 중위소득 180%'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하여 환아 가정 의료비 부담을 경감한다.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기한을 '출생후 1년 4개월 이내 진단·수술받은 경우'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예외기간*도 인정한다. * 저체중 등으로 수술이 곤란한 경우, 2년 후라도 의사소견 시 예외 기간 부여 및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의 보건소 참여를 확대(56 → 75개소)하여 보편적·전문적 서비스 지원을 강화한다.

지속적인 양육 지원을 확대하여 촘촘하고 질 높은 양육 돌봄 환경을 조성한다.

0~2세 영유아(장애아)보육료 단가 전년 대비 5% 인상*된다. *(23) 보육료(221~653천원) → (24) 보육료(232~686천원) 민간·가정어린이집 0~2세반 현원이 정원의 50%이상일 경우, 정원대비 부족한 인원만큼의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하며, 운영에 필요한 최저 보육료를 보장하여 민간·가정 어린이집 등 보육인프라 유지·확충한다.

3.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중증 환자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응급의료기관의 분류체계를 질향상으로 중증도에 따라 개편하고 진료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개별 의료기관에서 대응이 어려운 중증응급질환에 대해서는 '순환 당직 네트워크' 운영을 강화해 대응한다. 이를 위해 내년에는 올해 대비 98억원을 더 증액해 편성한다.

아동 건강도 가벼운 감기부터 소아암까지 단계별로 소아의료 체계를 만들어 지킨다.

우선 야간이나 주말에도 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전 화로 의료인과 상담할 수 있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이를 위한 예산은 2024년에 91억원으로 크게 증가된다. 소아암 환자들은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거주지 인근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별로 '거점병원' 5곳을 육성한다. 2024년에 64억원의 예산이 이를 위해 새로 배정된다.

이제껏 마음건강 사업이 치료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이전 예방에도 집중한다.

2024년부터는 중·고위험군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심리상담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누구나 지원하는 '전 국민 마음건강 투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며,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도 더 많이 할 예정이다.

4.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바이오 연구 성과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견인하기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에 7801억원을 투자하려고 한다.

국가가 직면한 큰 보건 난제를 해결하고자 어려우면서도 큰 효과가 기대되는 연구에 투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또한,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를 통해 세계 최고의 바이오 연구기관과 함께 혁신적인 기술을 발전시키려고 한다.

세계보건기구(WHO)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서 백신과 바이오 의약품 제조 과정에 대한 교육훈련을 제공하는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를 조성한다.

이 새로운 캠퍼스에는 2024년에 59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글로벌 보건의료에 도움을 주는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를 확대해 국가 위상을 높이고 대외적으로 우리 보건의료 분야의 국제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2024년에는 이 프로그램에 93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출처: 보건복지부)

사회적 약자를 보다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액
13.16% 인상
(생계급여, 4인가구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
(중증장애인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재산기준에 상향 조정)
총 5만명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초연금
총 2조 262억 원 책정
(2023년 대비 4,862억 원 인상)



최중증 발달장애인
맞춤형 1:1 돌봄체계 구축 및
장애인 전 영역 서비스 확대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하게 지원합니다



영유아, 장애인, 노인, 아이어도
필요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실시
및 자기돌봄비 신설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사업 전국 확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일찍 돕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자격 및 소득요건
완화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10만 원 인상
및 맞춤형 사례관리 확대

저출산 대책, 체감할 수 있게 지원합니다



필수 가임력(생식건강)
검진비 지원
및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 지원



시간제 보육기관 확대
및 정원 미달인 0~2세반에
기관보육료 추가 지원



부모급여 100만 원으로 확대 및 둘째부터는
첫만남이용권 300만 원 지원

사는 곳에서 필수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 지역 내 치료 가능하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및 순환 당직 운영지원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 가능하도록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지원



국민 누구에게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 신설
(539억원)



소아암 환자가 거주지 인근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소아암 지역
거점병원 육성

복지광장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김영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장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 1항을 보면,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의 날 취지를 살리기 위해, 2000년부터 매년 사회복지협의회 주관으로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해 오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올해는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옥천군민의 날 행사 일환으로,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와 옥천군사회복지협의회 공동주관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충북사회복지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국가에서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지정하는 것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법안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공포된 날이 1999년 9월 7일이기 때문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한 법률로,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립 및 자활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은, 그동안 빈곤 정책을 담당했던 생활보호법에서 벗어나 우리나라 공공부조제도에 큰 전환을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을 맞아, 위정

자들에게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 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진정으로 위로받고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이다. 선택된 몇 명에게 표창만 주고 끝나는 보여주기식 행사는 지양하고, 진심으로 종사자들이 사회복지 현장에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더 이상 선거용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단일임금이나 종사자 처우개선 문제는 선거 때마다 거론되고 있는 단골 메뉴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는 여전히 기대할 수 없기에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셋째, 사회복지가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중요한 영역임을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활동 역시 위정자들의 중요한 역할을 기억해 달라는 부탁을 드린다. 더 이상 대중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

으로 사회복지가 이용되어서는 안되며, 사회복지 현장도 이제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바쁜 일상 속에 사회복지의 날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무관심이 현장의 솔직한 모습일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임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바쁘다는 핑계보다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가 힘을 모아야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사회복지 현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변화가 있을 것이다. 초고령사회의 접근, 세계 최소의 출산율, 높은 이혼율, 1인 가구의 증가 등 사회복지 분야는 많은 변화에 직면해 있다. 사회복지 영역도 확대될 것이고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일도 많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전문성 강화 부분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며,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 현장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는 요즘이다. 조금만 더 뛰 어보자.

현장의 목소리

여기에 사람이 살아요..



조현웅

주택관리공단 주거복지협력단 주임

차갑고 어두운 곳, 곰팡이가 피고 쿨리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곳, 최소한의 주거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 여기는 '비정상거처'이다. 2021년 통계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택보급률은 102.2%에 달했지만 고시원, 여관, 여인숙, 쪽방,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일반적인 주택이 아닌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이들은 무려 37만명이나 된다. 필자는 오늘 이 글을 통해 최소한의 주거환경 및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하는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이유, 이분들의 주거상황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LH, 주택관리공단에서 시

행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해 다뤄보고자 한다. 먼저 '비정상거처'란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 빌라, 일반주택 등과는 다르게 개인 취사 시설이나 화장실이 없고, 최소 주거면적 미달 등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공간을 말한다. 이 중 고시원, 여인숙, 쪽방 등은 비정상거처 중 물리적 환경이 가장 열악하며, 1~3평 남짓한 매우 비좁은 공간에 책상 혹은 옷가지를 놓으면 사람 하나 간신히 누울 수 있는 곳이다. 또한 노후된 시설이 많아 냉난방이 잘 되지 않는 곳도 많고, 개인 화장실과 취사 시설이 없어 각 층에 있는 공용 부엌과 화장실을 10명 전후의 인원이 공동으로 이용해야만 한다. 간혹 개인 시설이 갖춰진 곳이 있지만 평장이 드물다. 이 외에도 PC방, 만화방, 상가, 노숙인 시설,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 등이 비정상거처에 해당한다.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주거권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왜 비정상거처에서 거주하는 것일까? 비정상거처 관련 주거복지를 담당하며 업무를 하다 보면, 만나는 대부분의 비정상거처 거주자는 비슷한 말을 한다. "보증금이 없고 저렴한 월세 때문"이

라고,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대상자분들 중 상당수가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으며 한 달을 살아간다. 급여액은 1인가구 기준 약 78만원 정도로 일반 주택이나 원룸에 거주할 경우 통상적으로 나오는 월세와 관리비를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다. 기본적인 생활비를 써야 하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가는 보증금 마련은 더 더욱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정상거처에 거주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택거주를 포기한 사람들을 위해 정부는 비슷한 조건에서 이들이 비정상거처가 아닌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상황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와 LH, 주택관리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자 중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영구·국민·매입·전세임대 등의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격조건은 먼저 무주택세대구성원, 그리고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마지막으로 가구당 월 평균소득 50%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해당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위의 자격요건을 가진 자의 자격 검증이 끝나면 LH임대주택공고와 상관없이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가의 보증금, 임대료로 주택에 거주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보증금 50만원과 저렴한 임대료, 관리비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준다. 추가적으로, 비정상거처 거주자에 한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 50만원 무이자대출까지 진행해 주어 주택에서도 "보증금이 없고, 저렴한 월세"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주거복지서비스 및 정보 제공, 이사·생활용품 40만원 지원, 입주 후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의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이 사업을 담당하기 전에 비정상거처란 용어의 생소함은 물론이고 여관, 여인숙은 하루 이를 머무르는 숙박시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는 공사 및 농사를 위한 공간이라 생각했었다. 누군가가 몇 달, 몇 년을 거주하는 주거공간이라곤 전혀 생각지 못했었다. 독자 중 나와 같이 비정상거처를 생소하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을 수 있다. 이 글을 통해 비정상거처가 무엇이고 거주자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며 이 곳에 거주하는 사람을 알게 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주택관리공단 LH주거복지협력단(☎043-903-0053)으로 연락을 바란다. 한 걸음에 달려가 도움을 드릴 것이다.

복지포럼

사회서비스 고도화와 약자복지?



송유정

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 이사장

2011년이었던가? 현 서울시장의 시정직을 내걸었던 일명 '무상급식 논란' 이후 우리 사회의 사회복지 근간 이념이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게 된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지금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다시 선별적으로 학교급식을 제공하겠다고 선언한다면, 아마도 이에 동의할 국민은 없지 않을까?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라도 답답하다. 이렇게 비아호로 '보편적 복지'의 시대로 들어 13년의 세월이 흘렀고, 과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일변도의 복지서비스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처럼 저출생, 고령화의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우리나라 사회서비스의 새 역사는 시작됐다. 2005년 '산후도우미지원서비스'로 부터, 2007년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바우처 서비스가 시작됐다. 우리 국민중 누구라도 중증의 장애를 가졌다면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소득수준별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돌봄서비스를 받게 되는 '중증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되었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이전인 그 해부터 소득수준과 관련없이, 건강이 좋지 않은 어르신들은 신청에 의해 가족이 아닌 사회의 돌봄을 받는 시대의 첫차를 타게 된 것이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시작이 그것이다. 그야말로 '보편적 복지, 사회서비스'의 시대로 대전환을 한 셈이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이 전국민 건강보험 내 산입으로 결정되었으므로 우리 국민 모두는 나도 모르는 새,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의무가 입되었고, 태초 진입장벽이 낮게 출발한 재가서비스 공급기관은 이제 길가다 편의점보다 자주 만날 수 있는 일명 '점포'가 되고 말았다. 의무적으로 보험가입을 했는데, 시설인프라 부족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는 국민적 불편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정책이었겠지만, 공급기관 과잉으로 겪는 열악한 서비스 품질관리, 일자리의 질 저하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른 듯 하다.

지난 5월,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정책기조로 제시했다. 사회서비스 일선의 한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동의하는 대목이지만 이를 실제 구현하는 현장의 이야기는 다르다. 얼마 전 '제24회 사회복지의 날 행사'에 정부가 내민 '케치플레이즈'가 그랬다. "충충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확충"이란. 뭔가 맥락이 맞지 않는다. 최근 청년, 중장년까지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겠다는 이 마당에 충충하고 두터운 건 좋은데, '약자복지'가 무슨 말인가? 각종 복지 정책은 모두 한 방향으로 더 많은 사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충한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설파하면서, '약자복지'는 뭔가 섞여진 않다. 자가당착이 아닌가? 모두가 돌봄이 필요한 약한 존재라고 본다는 해석이건지.. 그렇다면 "국민 모두를 위한 복지", "보편적 복지"라는 키워드를 쓰지 않을 이유는 없다. 기존의 개별 서비스 제공방식에서 이용자 필요에 따른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궁극에 대상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전반에서는 복지예산이 30%까지 삭감된다는 불편한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 과연 정부가 이야기하는 '사회서비스 고도화'는 무엇인지, '약자복지'라는 모호한 표현 뒤에 다시 '선별적 복지'의 마수가 씌여진 것은 아닌지. 최근 확대 시행하여 급변 추세에도 공급지역으로 선정된 '청년·중장년 일상돌봄서비스'는 시대상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사회서비스의 고도화 품목이다. 우리사회의 중장년, 특히 1인 가구는 건강관리와 가사노동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이며, 특히나 실질, 이혼 등으로 자칫 더 큰 낙인으로 빠질까 우려되는 복지사각지대 내 대상층이다. 실제 2017년도 전체 가구 대비 28%에 해당하던 1인 가구는 2021년 통계 기준 33.4%까지 늘어났다고 하니, 급격히 변화되는 사회상을 담은 추가수요 계층인 셈이다. 돈을 줄일 공산보다는 더 늘어나는 세수를 감당해 예산투자가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일. 그런데 정부의 사회서비스 고도화 정책은 마치 "잔여적 복지의 시대"로 회귀하겠다는 선언같이 읽힌다. 국민 누구나 필요한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 고도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해야 하는 때, 온 국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복지영역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새로운 복지서비스 수요에 민간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활성화로 '복지서비스 제공과 일자리'도 만드는 일거양득의 효과성을 노리는 세수 감소, 예산 축소는 역사의 퇴행같아 씁쓸하다.

똑똑똑! 법률상담입니다.

취약계층 법률 상담 서비스 법률상담터

법률상담터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법률주치의 제도'

지원내용
법률상담, 법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

신청방법
시 간 월~금 10:00~17:00(공휴일 제외)
전 화 043-238-0843
사무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302호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다문화가족·범죄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회적 취약계층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야
채권·채무 손해배상
근로관계·임금 개인회생·파산
이혼·친권·양육권 생활법률 전반



이달의 법률상식

공사현장 발생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관한 판례 소개



신덕범 변호사
법무법인 YK

Q 원고는 영무새 번식·판매를 위한 판매장을 운영해 왔는데, 판매장 바로 옆 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영무새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A. 피고들이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상업지역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였고 흡음형 방음벽을 설치하기도 하였으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환경피해 평가방법 및

배상액 산정기준」에서 정한 가족피해에 관한 소음기준(이하 '가족피해 인정기준') 이하로 소음을 낮추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들이 참을 한도를 넘는 위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로 이 사건 판매장에 발생한 소음이 가족피해 인정기준에 도달하였거나 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가 위 신축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이 사건 판매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 흡음형 방음벽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되고 6~7개월 후에 이루어진 조치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피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

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의 성질 및 정도,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의 위반 여부, 토지가 있는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만큼, 공사 등으로 인한 소음발생 피해를 겪고 계신 분이시면 가해행위의 위법한 행위 태양 및 그 침해사실과 재산적, 정신적 손해 발생사이의 인과관계를 잘 주장, 입증하여, 적어도 사회통념상 인내함이 요구되는 수인한도를 침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진행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법률안 입법 예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 거부 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보건복지부공고제2023-598호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에 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인의 인권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보호에 권고기준 수립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등의 내

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399호, 2023. 5. 2. 공포, 2023. 11. 3.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복지법」이 개정(법률 제19449호, 2023. 6. 13. 공포, 2023. 12. 14. 시행)됨에 따라, 이 영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학대보호에 대한 권고기준 수립을 협의하기 위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규정(안 제20조의15 신설)
나.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별표 2)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복지정보 제공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2023년 충북장애인 가족 작품전]

- 사업명: 장애인가족 작품전
- 사업소개: 제65회 충북예술제 기간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한다는 주제로 예술적 재능 교감 및 차별없는 소통과 공감의 장 마련
- 참여대상: 충북도 내 장애인가족
- 전시분야: 평면전시(그림, 사진, 서예(캘리), 시화 등 시각예술분야), 입체전시 등
- 전시기간: 2023.10.6.(금)~10.12.(목), 7일간
- 전시장소: 청주예술의전당 1층 소2전시실
- 문의: 충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043-264-1616)

- 신청대상: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 장애인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내용: 운동, 문화생활, 예술활동, 직업체험 등 낮시간 맞춤 프로그램 제공
- 문의 및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4~2169)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간활동서비스 참여 모집]

- 신청대상: 만18세 이상 65세 미만 발달 장애인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내용: 운동, 문화생활, 예술활동, 직업체험 등 낮시간 맞춤 프로그램 제공
- 문의 및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043-716-2164~2169)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청소년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참여자 모집]

- 신청대상: 일반 초, 중, 고등학교 및 특

수학교에 재학중인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내용: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문의 및 신청: 보건복지 상담센터(129), 충북발달장애인지원센터

[새생명지원센터, 2023년 청소년학부모·자립지원패키지사업 안내]

- 신청대상: 충청북도 거주 만 24세 이하 한부모, 만25세 이상 미혼모·부(혼인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자)
- 사업기간: 2023. 1. ~ 2023. 12.
- 지원내용: 양육용품 및 병원비 지원(연 100만원 이내), 상담, 전문심리치료, 멘토링 지원, 출산 진료비, 건강관리, 자녀양육(돌봄) 연계 등, 주거·교육·취업지원 등
- 문의 및 신청: 새생명지원센터

[청주시가족센터, 보호아동청소년 원가정기능 회복지원사업 "우리 가족이 하나되는 순간" 가족의 온도 36.5]

- 신청대상: 원가정 기능회복을 희망하는 아동·청소년 가정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가족상담 및 부모교육,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사후관리 등
- 지원기간: 2023년 1월 ~ 12월
- 신청방법: 청주시가족센터(043-295-1817)

1817)

[청주시가족센터, 함께하면 아름다운 "행복어 울림"]

- 신청대상: 한국 생활에 복합적 어려움이 있으며, 스스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는 다문화가족
- 신청기간: 연중
- 지원내용: (손)자녀 학습멘토링서비스, 가족문화체험, 상담 및 정보제공, 주거 및 법률 자원 연계 등
- 지원기간: 등록시기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청주시가족센터(043-295-1817)

[이랜드복지재단, SOS위고(WEGO)사업/주거, 생계, 치료, 자립 지원]

- 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각지대 저소득 가정
- 지원기준: 지원의 시각지대, 위기상황, 경제상황, 삶의 변화 및 문제해결 가능성
- 신청기간: 상시접수
- 발표기간: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
- 지원내용: 주거비, 생계비, 치료비, 자립비
- 신청방법: 여러 가지 홈페이지(everybranch.co.kr) 내 기관 신청, 본인신청 불가, 기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문의: T. 02-2644-0110 / 070-4241-9629

자원 봉사자 모집

▶주간재활프로그램 봉사
관리센터: 청주시서원정신건강복지센터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91-0199

▶건강검진 문진표 작성, 안내·사무보조 봉사
관리센터: 한국건강관리협회 충북세종지부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99-5734

▶이주배경청소년 '꿈빛교실' 프로그램 봉사
관리센터: 충주시가족센터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856-2253

▶어르신 말벗, 프로그램 보조 등
관리센터: 9988요양원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77-9988

▶지역사회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지원
관리센터: 충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845-4544

▶재가노인 식사배달 봉사
관리센터: 청주종합사회복지관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66-4761

▶어르신 대상 스마트기기 사용법 안내봉사
관리센터: 청주가정노인복지관
활동기간: 10.1 ~ 10.31
전화번호: 043-236-0111

지역사회봉사단 모집

관리센터: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활동기간: 연중
전화번호: 043-234-0840~2
*자료출처: www.vms.or.kr

지역사회봉사단

충북사회복지협의회 소속 봉사단, 자원봉사 교육 참석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김영석, 이하 협의회) 소속 지역사회봉사단 6팀은 지난 15일 협의회에서 주최하는 '2023년도 제2차 자원봉사 특화 교육(이하 특화교육)'에 나우리회, 다사랑회, 동행봉사단, 봉우회, 신문봉사단, 재능나눔연합봉사단이 참석했다.

특화 교육은 자원봉사 동기부여 및 팀워크를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참여형 교육으로 봉사자간의 소통을 통해 '봉사활동과 나'의 관계, '동기'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특화 교육에 참석한 지역사회봉사단 단원은 "건강한 자원봉사

와 나의 내면을 생각해 볼 수 있었다"며 "특히 봉사활동 현장에서의 내면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지역사회봉사단은 VMS에 가입된 2인 이상으로 구성된 봉사단체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과 봉사활동에 필요한 소모품도 지원이 가능하다.

지역사회봉사단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는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유선(☎043-234-0840~2) 또는 이메일(mjp7117@naver.com)을 통해 문의 가능하다.

한 번의 가입으로 행복지수 UP! 복지멤버십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한 번의 가입으로 개인 또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인적 특성을 분석해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찾아서 안내해주는 제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생애주기별로 찾아주는 서비스

안내 대상 복지 사업(예시)

- 임신·출산**: 영양플러스, 첫만남 이용권, 산모·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육아**: 부모급여, 아동수당, 마이돌봄
- 아동·청소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청소년학부모 지원 지원
- 생활지원**: 기초생활보장, 저소득층 요금할인(전기, 가스, 이동통신 등)
- 노령**: 노인 맞춤형 서비스, 기동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 가입 방법

- 방법 1: 복지포털 홈페이지
- 방법 2: 복지포털 모바일 어플
- 방법 3: 개관 2주(2023.10.1)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결과 조회 방법

- 문권인: 복지포털 홈페이지
- 오프라인: 개관 2주(2023.10.1)부터 전국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복/지/만/평

질문

이창신 www.bokmani.com

